朴漢永大師 (海東佛敎中興祖 曹溪宗 總務宗正 禪敎兩宗 大宗師)

老德과 青年

老德은 斯界에 重鎭이오 青年은 强將이다 老德은 青年의 敬仰이 되여서 模範을 보여야 하고 青年은 老德에게 同氣가 되여서 進就가 있서야 한다 青年때에 進就함은 老德은 老德답지 못하고 老德때에 模範잇스라 한 青年때에 青年다워야 한다。

내가 青年을 사람치 아니하면 青年이 나를 長敬할리 업고 내가 老德을 長敬치 아니하면 未來에 나를 長敬할 青年업다 그러나 老德과 青年의 冲突은 急進과 緩退, 舊習과 新潮, 閉鎖와 開放, 拘束과 自由, 保守와 改革 種種의 理由가 있다。

그리하야 어떤 時期에는 青年으로서 老德을 괴롭게 도하였고 어떤 方面에는 老德으로서 青年을 排斥도 하야왔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老德이나 青年의 全部사람이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에 있어이라 채스국도 불라하고 자래의 개혁이가 있어라 솟욱정에도 겉을 내는 에를 오로 過去에느 時期를 口實삼아가지고 永遠한 未來의 青年을 아조 不信任하려는 老德도 이제는 안이다 사람으로서야 귀가 있을 것스라 눈치 있고 한이다 하는 것처사 과정 더욱 親密한 注이다 그리고 時期가 時期일 뿐아니라 攝受니 改善이니 協調니 하는 것이 모다 그 현재에 適用하라는 것이다。

過去의 허물은 各立에 있었다 무엇이 현지 세아가 있면 바람이 드는 法이다 그것이 잘못된 制度였섯다 只今으로 改革易轍이 옷지 한다 老德들은 아조 丕훅 青年을 겨한 스로 方向을 자로 指導 ; 아다오 青年들은 아조 丕훅 老德의 품안에서 忠諫은 할지언정 反抗이 있을고 隨從은 할지언정 攻迫이 있을 바다오 그리하야 危險觀, 情緖觀하는 間隔을 도자。

사람은 그 사람일지라도 行爲가 前後異하고 입흉은 그 입흉일지라도 內容이 수상하면 그만이다 이만하면 老德과 青年세이의 今後의 如何히 할 것을 일수 있스리라고 믿는 바이다。